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3월 6일

CUOMO 주지사, VERIZON WIRELESS가 MARGARETVILLE에 영구 4G LTE 기지국을 가동한다고 발표

허리케인 Irene 복구 이래 가동된 이동 기지국을 대체

Andrew M. Cuomo 지사와 Verizon Wireless는 오늘 Margaretville 빌리지에 새로운 기지국의 가동으로 영구적인 Verizon Wireless 서비스가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제공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신규 기지국은 Margaretville과 주변 지역의 주민, 기업, 최초 대응자 및 방문자들에게 무선 음성 및 4G LTE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2011년 8월 허리케인 Irene의 여파 이래 가동되었던 경트럭 기지국, 즉, COLT를 대체합니다.

“Margaretville의 이 새 Verizon Wireless 기지국은 1년도 더 전에 허리케인 Irene에 의해 야기된 파괴 후 재건을 계속해 온 지역 주민과 기업에 반가운 소식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Verizon Wireless는 지역 기업의 조업과 소비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은 북부 뉴욕주에 대한 이 회사의 지속적 투자에 감사합니다.”

“COLT는 Irene 후 몇달, 몇주 및 몇달 동안 Margaretville에서 필수 무선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복구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이 커뮤니티를 재건하는 동안 연락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라고 이 회사의 북부 뉴욕주 담당 사장인 Chris Felix가 말했습니다. “이 새 기지국은 같은 고객들이 우리의 동급 최고 4G LTE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최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규 Margaretville 기지국은 지역 주민과 기업에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액세서리 및 M2M 기기를 포함해 최신 무선 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생활과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진, 음악 및 앱을 다운로드하고;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오락 옵션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심한 폭풍 피해를 경험한 다른 커뮤니티인 Prattsville에도 지난 2월에 새로운 Verizon Wireless 기지국이 가동되었습니다. 허리케인 Irene의 파괴 후 이러한 지역에 무선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Verizon Wireless는 이 두 기지국에 합쳐서 100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Korean

두 기지국은 Verizon Wireless가 2012년에 북부 뉴욕주의 네트워크 개선에 투자한 약 1억 6000만 달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이 회사가 이 지역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열 두번째 연속된 해입니다. 2000년 이래 북부 뉴욕주에 대한 이 회사의 네트워크 투자는 이제 총 16억 달러 이상이 됩니다. 이 회사는 북부 뉴욕주에 4G LTE 네트워크를 계속 신속하게 출시하고 있으며 금년 중반까지 전국적 입지를 4G LTE로 커버할 것입니다.

Verizon 4G LTE 네트워크는 그 출범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미국 전역에서 인구의 89%에 가까운 2억 7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Verizon 무선 4G LTE 네트워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news.verizonwireless.com/news/2012/12/verizon-wireless-4G-LTE-two-year-anniversary.html>. 4G LTE 시장의 전체 리스트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verizonwireless.com/lte.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